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발행인 공영일
주간 김진학
편집장 배종근
인쇄인 김준배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제1066호 〈주간〉 1995년 4월 3일(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한약학대 신설·법정계 증원

정원조정계획 5개학과 신설·10개 학과 증원

우리학교는 한약학대학 신설과 법정계열 2백50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96년도 설치학과 및 정원조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교육부의 대학정원자율화 확대추진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4개단대 5개학과 신설과 3대단대 10개학과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안에 따르면 지난해에 있었던 한약분쟁을 계기로 한약학과를 독립된 단대로 신설할 예정이며 묘스쿨 설립 등을 대비하여 법대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인데 교육부가 세계화 추진을 위한 지역연구, 통상, 국제관계, 어학분야와 첨단산업관련 이공계분야의 정원 조정을 권장하고 있어 이에 중점을 둔 증원이 예상된다.

한편 다음해부터는 대학이 학과 신설, 폐지, 정원증원 등을 교육부에 신청하면 결차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결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의료인력 관련학과와 사범계열, 수도권 소재대학은 제외된다.

교육부의 대학정원 조정결과는 오는 8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리학교의 신설학과와 학과 증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신설학과(정원)=▲법과대학 법학과(야/1백50), 국제법무학과(야/1백) ▲한약학대학 한약학과(80) ▲외국어대학 러시아어학과(50)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50)

증원학과(증원 인원)=▲문리과대학 물리학과(20), 화학과(20) ▲자연과학대학 화학과(10) ▲공과대학 전자, 전파계열(40), 기계공학과(10), 화학공학과(20), 전자계산학과(20), 토목공학과(10), 섬유공학과(30), 산업공학과(30)

이건수 장학금 전달

이건수 장학생 장학메달 및 지급증서 전달식이 지난 3월30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이건수(정외 12회) 동화전기 사장이 출연한 장학기금의 수익금 범위에서 1인당 1백만원씩 1년간 장학금이 지급된다.

다음은 장학생 명단 ▲여봉구(법학 3), 권순범(행정 2) ▲이정재(정외 4) ▲류영택(정경대 경영 4) ▲장선아(정경대 회계 4) ▲박민웅(전파공 4) ▲장은용(전파공 4) ▲김신안(전자공 3) ▲서성인(전자공 2)

프로메테우스 토론회

우리학교 '대중정치 조직' 프로메테우스는 8일 법대 102강의실에서 '학생운동의 평가와 진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진보학원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며 토론후 프로메테우스 제3기 신입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캠퍼스 새얼굴' 봄을 맞은 캠퍼스가 새단장을 하고 있다. 건물 안내도가 깔끔하게 바뀐 것. 정문종합안내도 역시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라고. 〈김태훈기자〉

학생학술 포상제도 도입

서울캠퍼스 학생처는 학생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학생 학술 활동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과 또는 학생회가 주관한 각 학과별 주제 또는 학문과 관련된 주제에 의한 학회, 세미나, 논문 작성 등의 제반활동에 대한 활동계획안을 오는 20일까지, 활동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학생 학술 활동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포상한다.

계열구분없이 최우수상에는 1백만원, 법정계, 인문사범계, 이학계, 의약계, 예체능계, 학생자치기구 6개 계열별 1학과씩 50만원을 포상한다.

학생 학술 활동 심사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생처장, 교무처장, 위원장이 위촉한 교수 3인으로 구성되며 학생과장이 간사를 맡을 예정이다.

여자 축구부 우승

우리학교 여자축구부가 '제43회 대통령배 남녀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31일 효창구장에서 벌어진 결승경기에서 한양여전과 맞붙은 우리학교 축구팀은 전후반 동점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끝에 2:1로 승리를 거뒀다.

대책위, 피해보상마무리

개인부담 진료비, 분실품 신고 접수 총무과, 단기적 개혁안 기획

수원캠퍼스 교통대책위원회(대책위장 : 박규홍기획실장) 제2차 사고 수습대책회의가 지난 29일 3시30분에 기획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들의 치료뿐만아니라 손실보전적 성격의 보상에 대한 협의를 마치므로써 사실상 피해보상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다.

아울러 교통대책위원회는 피해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편지 등을 통해 개인부담 진료비 및 분실품등을 신고받기로 했으며 건의사항등을 접수키로 했다.

또한 통학차량 개선대책에 대해 주무부서인 총무과의 제안을 다음회의에서 확정키로 하여 단기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과가 기획한 안은 첫째로 강남순환차량의 경우 통합집중 시간대(7시30분~8시30분) 관광버스 우선 증차, 둘째로 수원노선 주통학시간대(8시~9시)에 직행 시내버스 적극 유치, 셋째로 배차시간표의 철저한 준수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 조병춘과장은 "아울러 중장기 대책에 관련해서도 학생복지위원회가 '스쿨버스 증차'에 대해 안건을 올려 다음회의에서 이부분에 대한 실무부서진 구성부분과 총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3차회의는 오는 7일 3시에 열린다.

인복위장 임성룡군 당선

임성룡(문리대 화학4)군이 제7대 인권복지위원회(인복위) 위원장에 당선됐다.

지난 3월28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임군은 총 1백14명의 투표자중 98명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에 선출됐다.

임군은 "우선 학우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학우들의 '제권리 찾기'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한편, 임군은 ▲교내 가로등 완비 ▲식당, 매점에 대한 선불카드제 도입▲안경세척기 설치 ▲무료상영관 설치 ▲매장공동관리위원회건설 ▲자전거주차장 건설 등을 선거공약으로 냈다.

이에 대해 임군은 "올해 사업재정확보방안으로 우선 매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헌혈캠페인 하루 2백70명 참가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김성욱군을 돕기 위한 헌혈캠페인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헌혈캠페인에 참여한 학생 및 지역주민은 모두 2백70명으로 헌혈증서는 현장에서 식가공과학생회에 기증되었다.

본사가 벌이고 있는 헌혈증서와 성금의 접수는 김군의 퇴원시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한주 본사에 접수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축초 늘사랑회 김상기 : 100매(행정대학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대학생 3명 각 1매
△정광조 : 3매 공세단(본보 인쇄처)직원
△김보장 : 6매(사회대 무역 3)
△김병선 : 1매(한국 외국어대 아랍2)
△김덕일 : 2매(철학 94)
△안정현 : 1매(정외 4)

성금 접수 구좌

한국외환은행 : 258-13-00221-6 경희대학교
우 체 국 : 103804-0027152-11 경희대학교

교시탑

책임감 저버린 학생대표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고 심지어 국민학생들도 자기 반을 위해 반장을 대표로 세운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들도 총장과 학생회장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리를 위임한다. 이렇듯 조직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상의 원리(?)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요즈음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이해충돌이 심해 여러가지 의견을 한 곳으로 수렴하기가 어렵다.

▼지난 3월 28일 서울캠퍼스 도서관시청각실에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부터 각 학년 과대표까지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렇듯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으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띤다.

올해 전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2백20명 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은 1백12명이 출석하여 개회되었다. 그러나 인권복지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몇명의 대의원들이 퇴장을 하여 과반수가 못 넘어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개회된지 2시간 30분만이었다. 이미 전학대회 개최가 일주 전에 공고되었고 대의원들이 회의중간에 퇴장해 버려 대표들의 책임감에 실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95년 학생회 정책기조' 확립과 '총학생회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해 학생회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회칙개정안 통고와 통일준비위원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인준을 미루게 되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고 가치체계가 혼란을 겪는 지금에 와 우리 대학사회도 그러한 시대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표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반 학생들의 기대와 신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질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의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대표에게는 그 역할에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며, 그 책임은 학생들의 믿음에서 출발한다. 〈구영준기자〉

레이저연, 중국 Anhui연구소와 협정체결

상호교류통한 공동 연구과제 수행

우리학교 레이저 연구소(소장 : 이주희 전자과 교수)는 중국 아카데미 산하 광학 및 정밀기계의 Anhui연구소와 연구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두연구소가 체결하여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는 황해안의 대기정수에 대한 정밀 관측과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항해연안에 서울-베이징-타이페이를 연결하는 3자지역에 대기관측 오존라이다 네트웍을 구성하여 동시에 자료 분석을 연구 수행한다.

이와함께 두연구소에서는 황해에서 일어나는 각종오염과 항사 수송경로의 공동관측 및 성층권, 오존층의 고나측도 함께 수행한다.

이밖에도 주요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과학자 교류, 실험기기 무상임대와 함께 LIDAR의 데이타 프로세싱 및 하드웨어 기술, 비선형과학, 레이저기술의 연구도 공동추진한다.

협정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천년까지이며 협정체결을 위해 지난 2월 중국측 책임자인 Huang Hui교수가 우리학교 레이저 연구소를 방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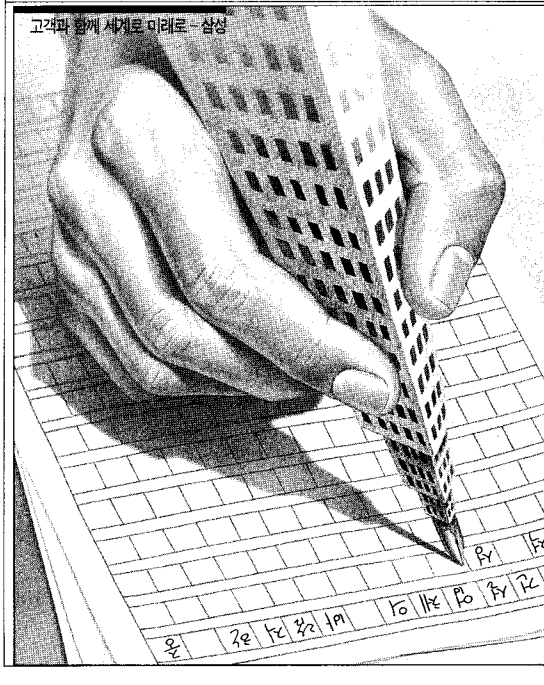
제1차 정기전학대회 무산

올해 제1차 정기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무산되었다.

지난 3월28일에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던 전학대회는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위원장선거후 몇명의 대의원들이 퇴장하여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가 되지 못해 연기되었다. 전학 대회에 참석한 한 학우는 "다른 일도 아니고 대의원수가 부족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어이 없는일"이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95정책기조안 총학생회 예산확정 등의 일반안건과 시중련, 한총련 정책기조 발제 등의 특별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국내건설업의 세계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제4회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내 및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폭넓게 공모합니다.

응 모 요 강

1. 참가대상
- 국내 및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 ('95년 8월 3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

2. 응모기간
- 1995년 8월 21일~8월 31일

3. 응모주제(8개 주제중 택일)
- 국내 건설업체의 바람직한 중장기적 성장모델에 대한 제언
- 국내 건설업체의 선진 건설사상 신흡 화대방안 (미국, 일본, EU 등)
- 국내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갈등기능 정립 방안
- 국내 협력업체의 「기술자립 및 원천」 순수 유도 방안
- 국내 건설기술력의 현위치 분석 및 향후 바람직한 육성 방향(사설, 설계·엔지니어링, C.M, P.M 등 각 분야중 택일)
- 국내 건설업체의 출연력보전 위한 시공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 21C에 대비한 미래형 복합단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
- CR에 따른 건설업계의 환경문제 대응 방안

4. 응모요령
- A4용지 30~4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로 이용 작성제출(원고용지나 학교명이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 원본 및 사본 2부씩 3부 제출
- 재학증명서 및 동상 우리학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시

5.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부상(시계)
  - 우 수 상(4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부상(시계)
  - 장 려 상(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부상(시계)
- 특 전
  - 우수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일본 견학 기회(3박 4일)부여 및 명시 입사 희망시 우대. 단, 해외 우수상이상 수상자에게는 외방에 따라 국내 항공 왕복권 제공으로 대체 가능.
  - 매회 수상자 선원을 대상으로 전목회를 결성하고 정기 모임 지원 및 회사와 유대관계를 갖도록 함.

제3회 수상자 일본견학
최우수상 서울대학교 이지성
우 수 상 충북대학교 정명미, 허재홍 중앙대학교 김규용

6. 작품심사
- 1차 : 삼성건설 자체 심사
- 2차 :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 주제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 발표
- 1995년 10월 14일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8. 시 상
- 1995년 10월 18일(삼성건설 창립기념일)

9. 제 출 처
- 우편번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은강타워빌딩 강남사서함 1430 삼성건설 기획팀(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10. 기 타
- 수상을 하지 못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15만원)
-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국내외 저서나 논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함.
- 입상도냔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해외 유학생은 한국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 527-1740~4, 1836)

SAMSUNG 삼성건설